일터 취업난 '그룹 스터디'로 뚫어라

함께 공부하면 길이 보인다 목표기업 정해 단계별 공략

지방대생에게 취업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필수가 되고 있다. 실전형 그룹 스터디를 잘만 활용하면 지방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업정보나 시험유형 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남대가 최근 학교 내 10여 개 취업 스터디 그룹에 대한 스터디룸 제공·학습활동비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결성된 스터디 그룹은 공기업·항공사·언론사·증권·전자·제조업·자산운용 등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해당 기업에 맞춰 입사서류 작성법이나 면접 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입사서류 작성법·면접 요령 등 노하우 공유

◇전남대에만 10여개 결성='나빌레라'는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여대생들을 위한 취업스터디 그룹이다. 매주 화·목요일 3시간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 취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항공사 면접에 대비한 영어는 물론 객실승무원 면접 노하우, 면접에 도움이 되는 머리 모양이나 화장법 등을 서로 공유한다.

채지수(여·22·전남대 의류학과 3학년)씨는 "향후 취업선배들의 조언과 인사담당자들과의 면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업 꽃이 피다'는 CJ와 신세계를 타깃으로 한 학생들이 모였다. 지난해 신세계 주최로 열린 '제 9회 신세계 대학생 유통 프런티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경환(28·전남대 경영학부 4년)씨 등 회원 7명이 매주 화·목요일 2시간씩 모여 해당 기업에 맞춰 시사 상식과 인·적성검사를 준비하며 입사 서류 작성법 등도 돌려가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취업 선배들과의 대화 및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DHC 등 화장품 회사나 방송국 등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Useful+W'는 여성들만을 위한 취업 스터디그룹이다. 화장품 회사가 목표인 만큼 기본적인 입사 시험 준비 외에 취업 대비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도 공유하고 있으며 회사 측과 연결,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선배들의 취업 과정에서 익힌 노하우를 UCC로 만들어 활용할 구상도 세워놓았다.

전남대는 이외 공기업 전문 스터디그룹 'hot ball','영업관리, 마케팅'으로 취업 분야를 세분화한 스터디그룹 '상상서포터즈',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입사를 목표로 한 'BLASH' 등의 취업 스터디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스터디 그룹 활용하기 나름=취업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거나 만들 때는 구체적인 타깃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취업 선배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대기업','공기업','유통업체' 등으로 막연하게 모였다 흩어지는 것보다 단일 회사를 목표로 한 스터디 그룹이 확실한 도움이 된다. 기업별 입사전형이 다른 만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모르는 정보와 공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분야별로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상식은 상식, 면접, 인적성 검사 등보다 전문화된 스터디 그룹을 통해 취약한 부문을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터디 그룹만 믿어서는 안 된다.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되 입사 스펙을 쌓는 것은 기본이다. 또 불성실한 회원들이 있는 스터디 그룹을 피하는 것이 좋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돈 안돌았다

경기침체 영향 상반기 화폐 수급량 감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화폐 수급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 공급한 화폐(총발행액)는 1조838억원, 회수한 화폐(총환수액)는 1조1천6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9%(318억원), 8.6%(1천93억원) 감소했다.

이에따라 총발행액과 총환수액을 합한 화폐수급 규모는 2조2천4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411억원(5.9%)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대비 0.3%p 하락한 7.5%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적인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현금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23일 첫 선을 보인 5만원권은 6월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1천389억원이 발행돼 전체 발행액의 12.9%를 차지했다. 반면 1만원권 발행액은 8천9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689억원(15.8%) 감소했고, 5천원권과 1천원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중 주화 발행액은 42억5천4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억6천900만원(22.1%) 증가한 반면 환수액은 3억1천500만원으로 1억7천700만원(36.0%) 감소해 순발행액은 39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6일 오후 광주 갤러리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하우시스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고기능성 창호인 스마트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감성 살린 최첨단 창호·유리제품 출시

LG하우시스 광주 발표회

국내 최대 건축장식자재 기업인 LG하우시스가 16일 광주 갤러리아 컨벤션센터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최첨단 창호와 유리제품을 선보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 대리점주, 소비자 등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LG하우시스의 브랜드인 '지인(Z : IN)'의 스마트창, 디자인 내창, 파워슬림 발코니창과 유리 제품인 TPS에메랄드 솔라 등 4개 제품이 첫 선을 보였다.

스마트창은 장마철에 대비해 수밀성을 높이고 광폭설계로 단열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고, 디자인 내창은 라인드형 방풍틀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품위있게 연출할 수 있다.

또 파워슬림 발코니창은 발코니 확장에 적합하게 설계됐으며, TPS에메랄드 솔라 유리는 유해 자외선을 90% 가까이 차단해 피부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하우시스 박현신 상무(창호재사업부장)는 "지인 창호 신제품을 광주지역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고객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연금 수익률 사상 첫 마이너스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역 및 기금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은 -0.18%로 지난 한 해 4천270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기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국민연금 수입은 278조6천147억원이며 이 가운데 43조1천900억원이 연금 지급 등으로 지출되고 235조4천247억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말까지 누적수익률은 6.20%로, 총누적수익금액은 83조7천35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가중수익률'은 주식부문에서 -42.87%의 큰 손실로 인해 -0.18%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 일정 기간의 수익률을 평균한 '시간가중수익률'은 -0.21%로, 벤치마크(시장평균) 수익률 -1.98%를 1.68%포인트 상회했다.

반면 주식부문의 시간가중수익률은 -39.98%로 벤치마크(-37%)보다 수익률이 더 나빴다. /연합뉴스